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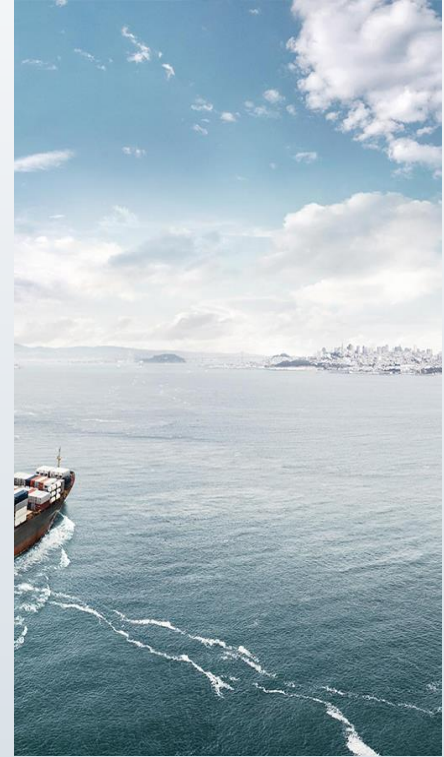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409

July 12, 2022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4
Tankers	8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2
Key Indicators	15
Issue & Trend	17
Contact Details	18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LNG 선 신조선가가, 곧 250 백만달러 신기록 넘긴다

LNG 선 신조선가가 곧 250 백만달러 신기록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LNG 선 10 척, 23 억달러 수주를 공시했다. 이 중 8 척은 KNUTSEN 이 담당할 215 백만달러의 카타르 LNG 선이다. 또 2 척은 TMS CARDIFF 의 투기 발주로 추정된다.

이 TMS CARDIFF 의 LNG 선 계약가는 무려 245.4 백만달러이다. TMS CARDIFF 는 5 월에도 삼성중공업에 230 백만달러 2 척을 발주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LNG 선 신조선가는 곧 사상 최고점 250 백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작년에 수주한 러시아 SCF 의 183 백만달러 LNG 선 3 척을 계약 취소하고 바로 ALPHAS GAS 에 242 백만달러에 리세일 매각한다. 인도시점은 동일하게 2023~2024 년이어서 현대삼호중공업의 선포는 빠르게 고마진으로 바뀌게 된다. 현대미포조선도 오랜만에 튀르키예 PASCOGA 로 LPG 선을 수주했는데, 1 년 전에 동 선사로부터 수주한 동선형보다 신조선가는 무려 35%나 오른 63.5 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선사들이 2024~2025 년 실적은 매우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다올투자증권은 밝혔다.

2. 1206 원이 걱정... 1300 대 환율에 수출 채산성·물가 비상

원/달러 환율이 1300 원대를 돌파하는 등 13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 채산성 악화는 물론 물가 불안에 대한 기업들의 근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 대 기업 중 12 대 수출 주력 업종 150 개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올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이동통신기기 포함 전기전자 -3.8% ▲철강 -2.9% ▲석유화학·석유제품 -1.1% 등 업종은 올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 하반기 우리 기업들이 수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걱정 원/달러 환율 수준은 1206.1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1300 원을 넘는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출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응답 기업의 40%는 올 하반기 수출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악화 요인으로는 ▲원유, 광물,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39.8% ▲해운 운임 증가 등 물류비 상승 31.5%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I . NEWS

이자비용 상승 15.7% 등을 꼽아 전반적인 생산원가의 상승이 수출 채산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기업들의 불안 요소 중 하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4.82% 상승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도 9.2%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8%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8% 이상의 지속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6개월보다 길다. 생산자물가의 급등은 원재료 수입물가의 급등에 기인한다. 한경연은 전년 동월 대비 원·달러 환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올라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원자재 공급애로 타개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환율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가스관 잠그는 러시아...유럽, 올 겨울 에너지난 '예고'

천연가스 수요는 일정하게 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최대 공급자인 러시아가 제재를 이유로 가스관을 봉쇄하면서 지난 해 초보다 700% 올랐다. 이는 감당하기 힘든 증가치다. 대체 연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는 필수 소비를 위해 절약 외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폭등의 주요 원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원인은 유럽이다.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유럽은 값싼 연료에 눈을 돌렸다. 러시아를 믿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계심을 풀었다. 그 결과 30여 년이 지나서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자 무장해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특히 독일은 '교역을 통한 변화'에 대한 과도한 확신으로 이를 무시했다. 그 결과는 가장 참혹한 피해다.

독일은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면서 값싼 에너지 수혜와 국방 분야 부담을 경감하면서 세계 4위 경제부국 위상과 복지를 누리 왔지만 올 겨울 에너지 수급을 당장 걱정해야 할 처지이고 무역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I . NEWS

이제 석유 외 천연가스도 또 다른 형태의 자원 무기가 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유럽은 추운 겨울에 대비해 천연가스 저장고를 채워야 하는데 겨울을 무리 없이 내려면 80~90% 이상을 담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40~50%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수입처인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거나 러시아를 제재할 경우 7월 중순 이후 가스관을 완전히 잠근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푸틴은 서구 일각에서 나오는 전쟁이 9 월이나 올 연말에 종료될 것이라는 추측을 비웃으며 아직 제대로 된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장기전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나 카타르, 아시아 국가로부터 LNG 선박을 통해 액화된 가스를 공급받고 있지만 이를 저장할 터미널이 아직 부족하다. 터미널에서 내륙으로 옮기려고 해도 차량이 충분하지 않다.

유럽은 이제 20 개 정도 터미널을 신규로 건설하려고 한다. 완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유럽은 이러한 부족을 마냥 지켜만 볼 수 없어 자유 시장경제임에도 가스를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독일은 비상사태를 이미 검토했고 배급제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선두로 G7 과 나토 등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 등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지만 제재의 효과는 너무도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재가 오히려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푸틴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외부 위협에 더 강하게 결속하고 있으며 푸틴은 식량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과 달리 장기전을 펼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제재가 러시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 인도 등의 러시아와 교역 확대로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에너지 대란과 식량난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도래함에 따라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있다.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제재가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 유럽 모두 힘들어진다. 대체할 자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재는 모두에게 고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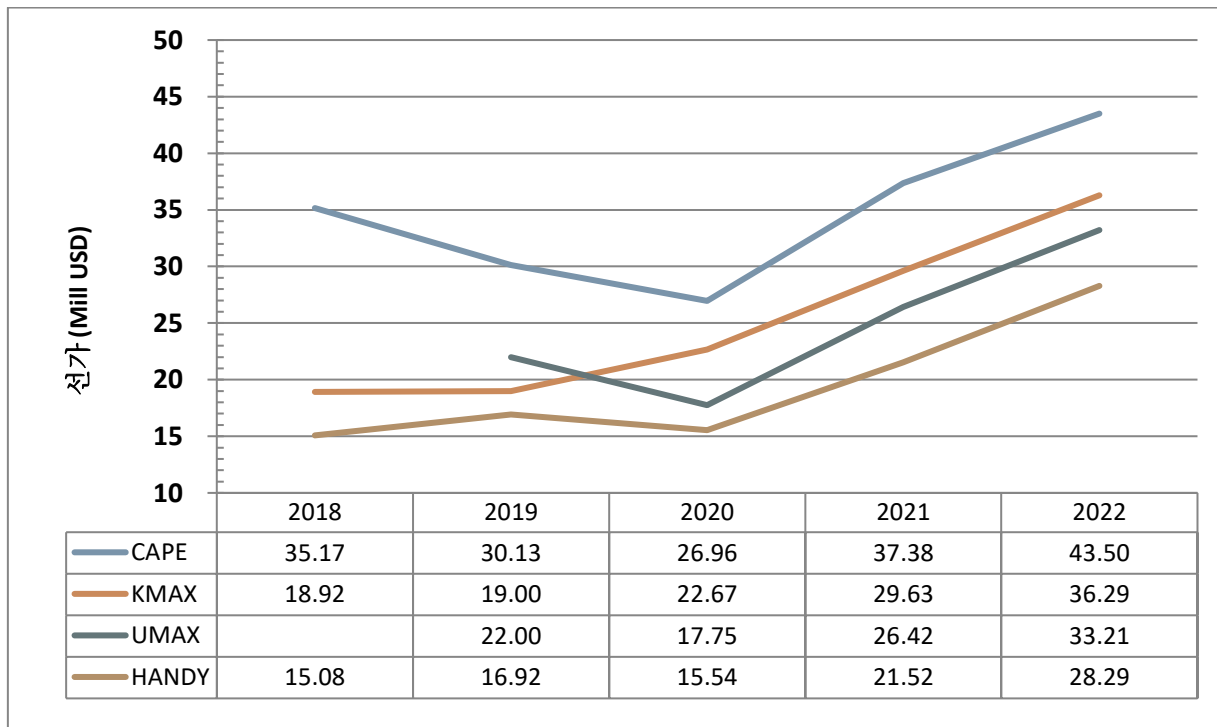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8	2019	2020	2021	2022
Capesize 180K	35.17	30.13	26.96	37.38	43.50
	11.20%	-14.34%	-10.51%	38.64%	16.39%
Kamsarmax 82K 76K (~2019)	18.92	19.00	22.67	29.63	36.29
	6.82%	0.42%	19.30%	30.70%	22.46%
Ultramax 60-61K		22.00	17.75	26.42	33.21
			-19.32%	48.83%	25.73%
SMAX 58K (~2020)	17.92	17.17	15.92		
	9.69%	-4.20%	-7.28%		
Handysize 37K '32K (~2018)	15.08	16.92	15.54	21.52	28.29
	9.37%	12.18%	-8.13%	38.47%	31.43%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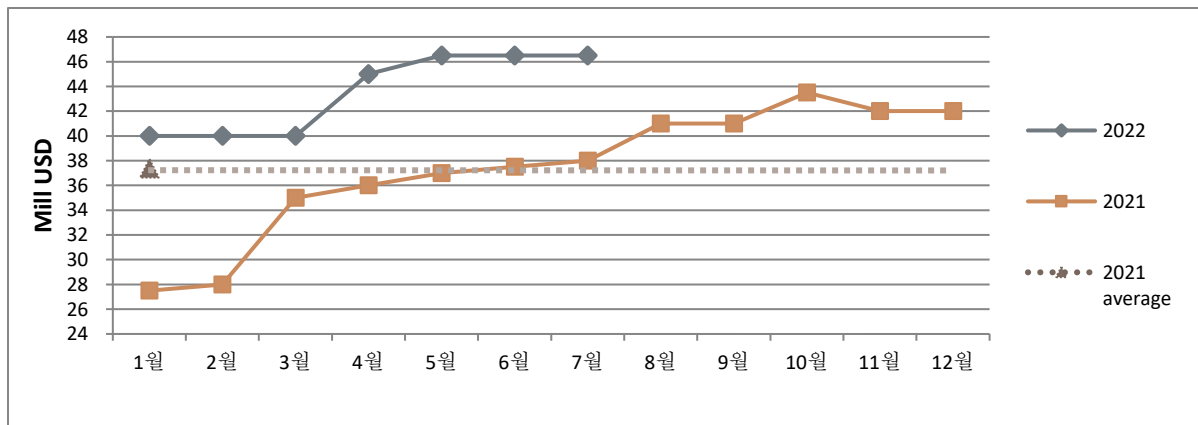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균
CAPE (180K)	선가	40.00	40.00	40.00	45.00	46.50	46.50	46.50	43.50
	전월대비	-4.8%	0.0%	0.0%	12.5%	0.0%	3.3%	0.0%	--
	전년대비	45.5%	42.9%	14.3%	25.0%	24.0%	25.7%	22.4%	16.4%
KMAX (82K)	선가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7.50	36.29
	전월대비	3.0%	1.5%	2.9%	2.8%	0.0%	4.1%	-1.3%	--
	전년대비	41.7%	38.0%	31.5%	35.2%	28.8%	35.7%	23.0%	22.5%
UMAX (60-61K)	선가	30.50	32.50	33.00	34.00	34.50	34.00	34.00	33.21
	전월대비	1.7%	6.6%	1.5%	3.0%	1.5%	0.0%	-1.4%	--
	전년대비	52.5%	58.5%	46.7%	51.1%	30.2%	41.7%	19.3%	25.7%
HANDY (37K)	선가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9.00	28.29
	전월대비	7.8%	1.8%	0.0%	1.8%	0.0%	0.0%	1.8%	--
	전년대비	86.4%	72.3%	45.5%	42.5%	39.0%	42.5%	28.9%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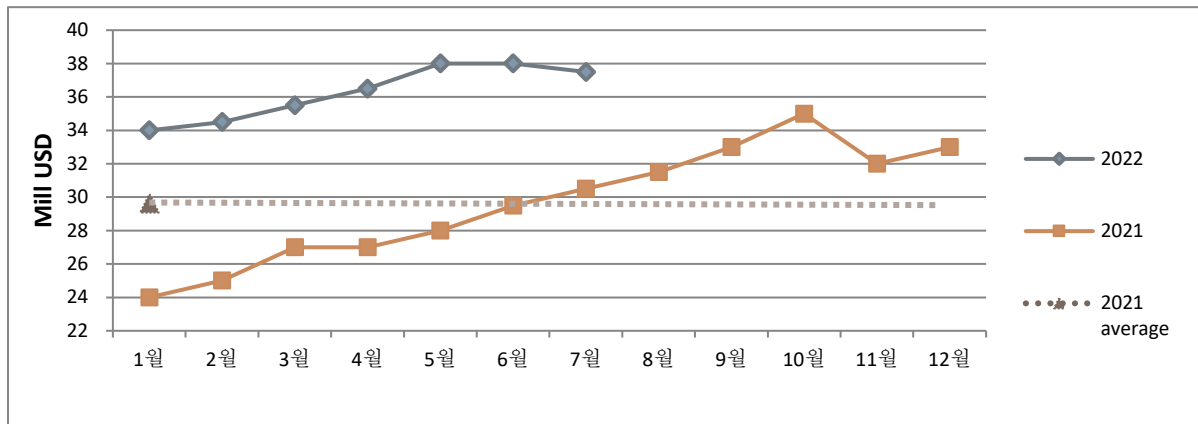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균
CAPE (180K)	27.50	28.00	35.00	36.00	37.00	37.50	38.00	37.38
KMAX (82K)	24.00	25.00	27.00	27.00	28.00	29.50	30.50	29.63
SMAX (58K)	20.00	20.50	22.50	22.50	24.00	26.50	28.50	26.42
HANDY (37K)	14.75	16.25	19.25	20.00	20.00	20.50	22.50	21.52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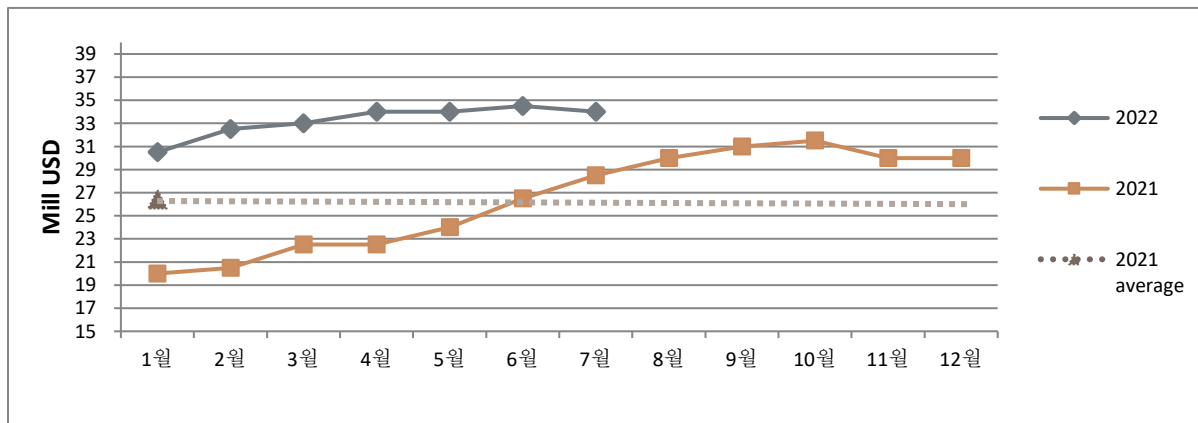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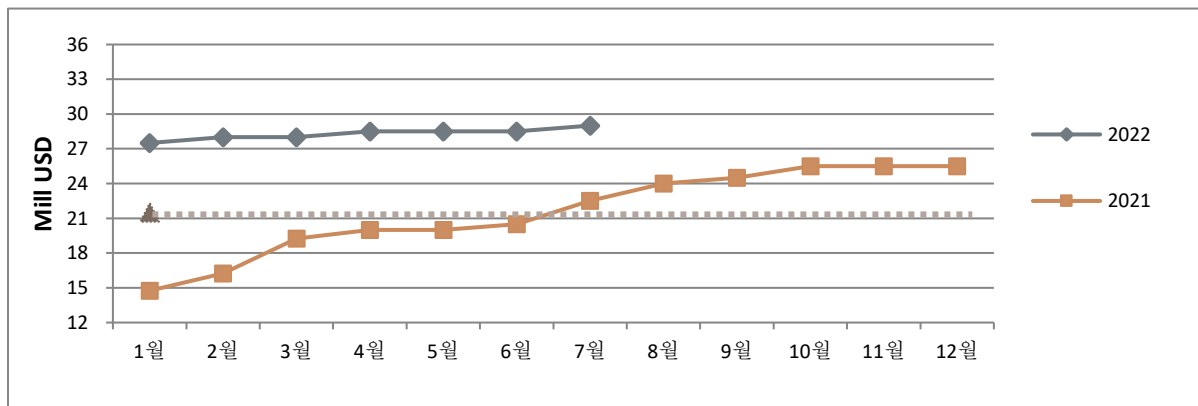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SDTR JULIA	84,800	2022	CHINA	B&W		35.18	Undisclosed buyer, eco, online auction
BC	FORTUNE TRADER	74,750	2001	CHINA	B&W		11.9	Undisclosed buyer
BC	CHRISTINA IV	72,493	2000	JAPAN	B&W		13	Middle Eastern buyer
BC	WESTERN SANTOS	63,518	2014	CHINA	B&W	C 4x30t	26.4	Hong Kong buyer (Jinhui Shipping), BWTS fitted
BC	VAN CONTINENT	74,475	2007	CHINA	B&W	--	18.5	
BC	VAN GENERAL	57,346	2011	CHINA(KOR)	B&W	C 4x30t	19.2	
BC	VAN AUSPICIOUS	53,550	2006	CHINA	B&W	C 4x35t	16	Hong Kong buyer (HNA Technology Investments)
BC	VAN ETERNITY	53,390	2007	CHINA	B&W	C 4x36t	16.7	
BC	VAN BONITA	53,383	2008	CHINA	B&W	C 4x36t	18.6	
BC	VAN DUFFY	52,424	2006	CHINA	B&W	C 4x30t	17	
BC	MEDI BANGKOK	53,466	2006	JAPAN	B&W	C 4x31t	17.5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TRUE FRIEND	43,775	1996	KOREA	B&W	C 4x30t	--	Undisclosed buyer
BC	MILAU BULKER	38,173	2012	JAPAN	B&W	C 4x30t	23	UK buyer (Newport Shipping)
GC	DORTHE OLDENDORFF	37,873	2019	CHINA	ETC	C 4x45t	25.0	Undisclosed buyer
BC	OMNIA	36,787	2011	KOREA	B&W	C 4x30.5t	19.6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SUNRISE	29,828	2006	JAPAN	B&W	C 4x30.5t	--	Undisclosed buyer
BC	VANTAGE RIDER	29,084	2011	CHINA	B&W	C 4x30t	15	Vietnamese buyer
BC	ZHE HAI 355	26,750	2010	CHINA	PIELS	--	7.8	Chines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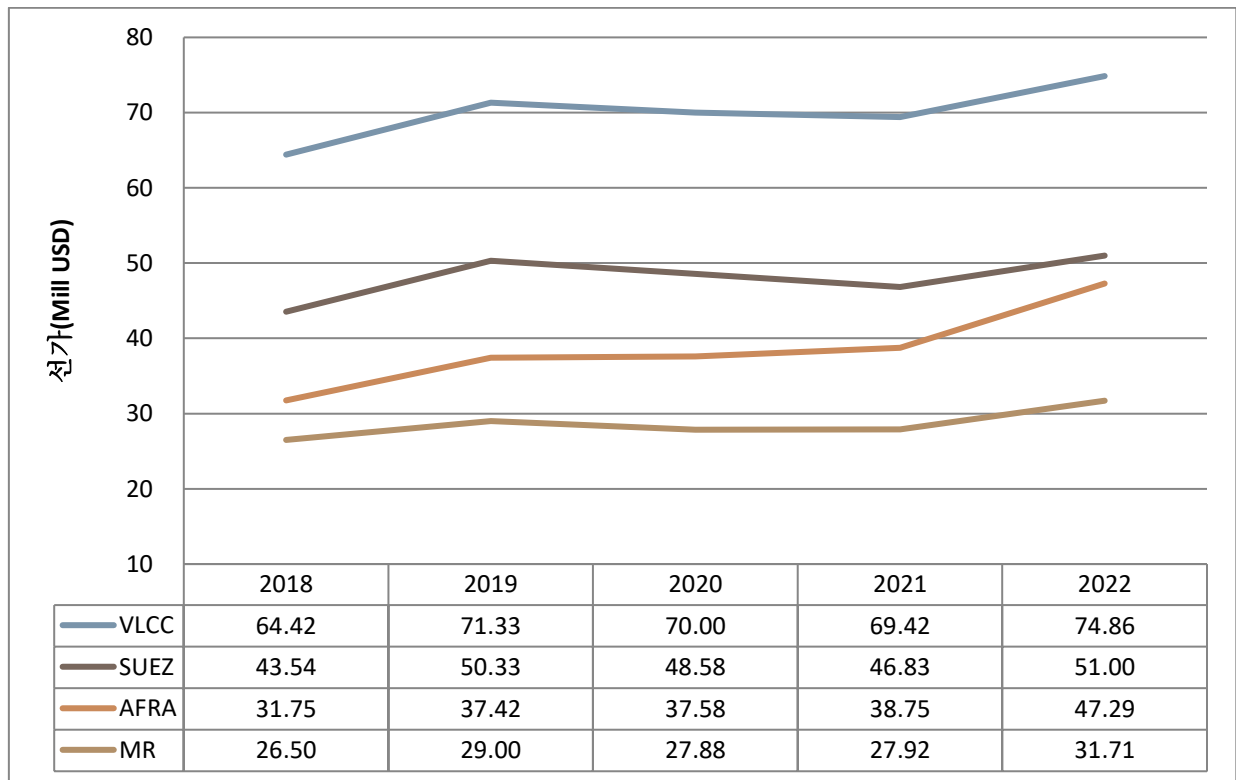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VLCC (310K)	64.42	71.33	70.00	69.42	74.86
	2.11%	10.73%	-1.87%	-0.83%	7.84%
Suezmax (160K)	43.54	50.33	48.58	46.83	51.00
	5.45%	15.60%	-3.48%	-3.60%	8.90%
Aframax (105K)	31.75	37.42	37.58	38.75	47.29
	4.81%	17.85%	0.45%	3.10%	22.03%
MR (51K) <small>**18 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6.50	29.00	27.88	27.92	31.71
	11.38%	9.43%	-3.88%	.15%	13.60%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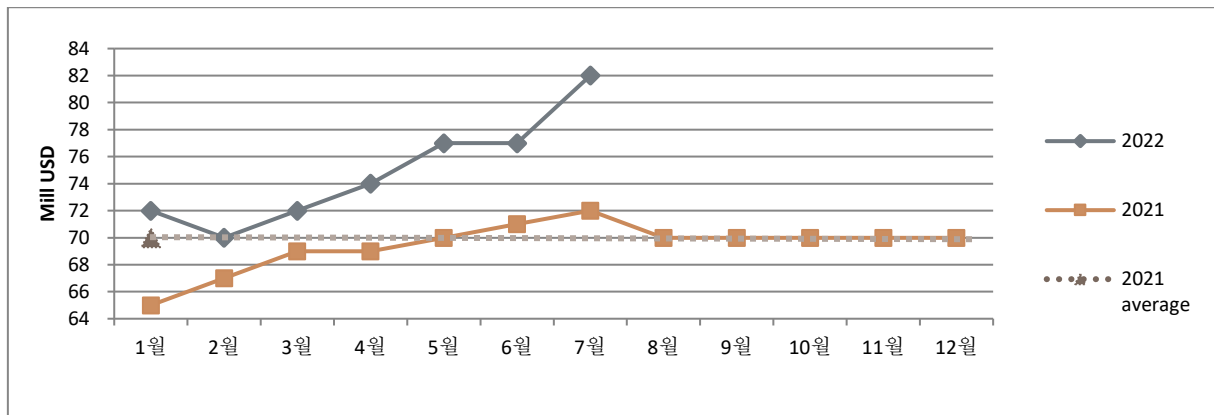




III. TANKER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균
VLCC 310K	선가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0.00	74.86
	전월대비	2.9%	-2.8%	2.9%	2.8%	4.1%	0.0%	3.9%	-
	전년대비	10.8%	4.5%	4.3%	7.2%	10.0%	8.5%	11.1%	6.9%
SUEZ 160K	선가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5.00	51.00
	전월대비	2.1%	-2.1%	4.3%	4.1%	2.0%	3.8%	1.9%	-
	전년대비	9.1%	9.3%	8.9%	8.5%	9.5%	11.3%	12.2%	5.0%
AFRA 105K	선가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0.00	47.29
	전월대비	9.8%	0.0%	0.0%	4.4%	4.3%	0.0%	2.0%	-
	전년대비	36.4%	36.4%	21.6%	17.5%	22.5%	22.5%	25.0%	25.8%
MR 51K	선가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3.50	31.71
	전월대비	3.4%	0.0%	-3.3%	12.1%	3.1%	0.0%	0.0%	-
	전년대비	9.1%	9.1%	5.5%	18.2%	21.8%	21.8%	19.6%	13.8%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연 평균
VLCC		65.00	67.00	69.00	69.00	70.00	71.00	71.00	70.00
SUEZ		44.00	43.00	45.00	47.00	47.50	48.50	48.50	48.58
AFRA		33.00	33.00	37.00	40.00	40.00	40.00	40.00	37.58
MR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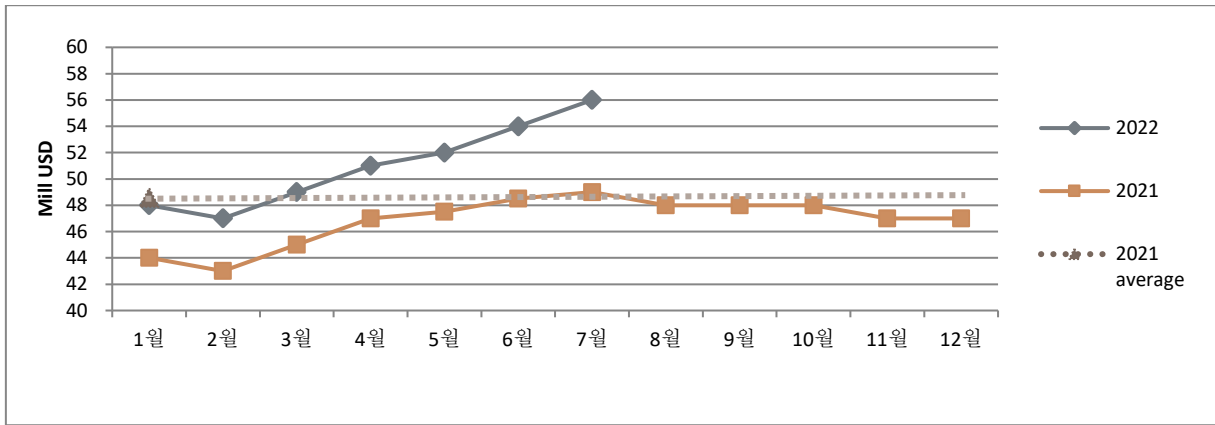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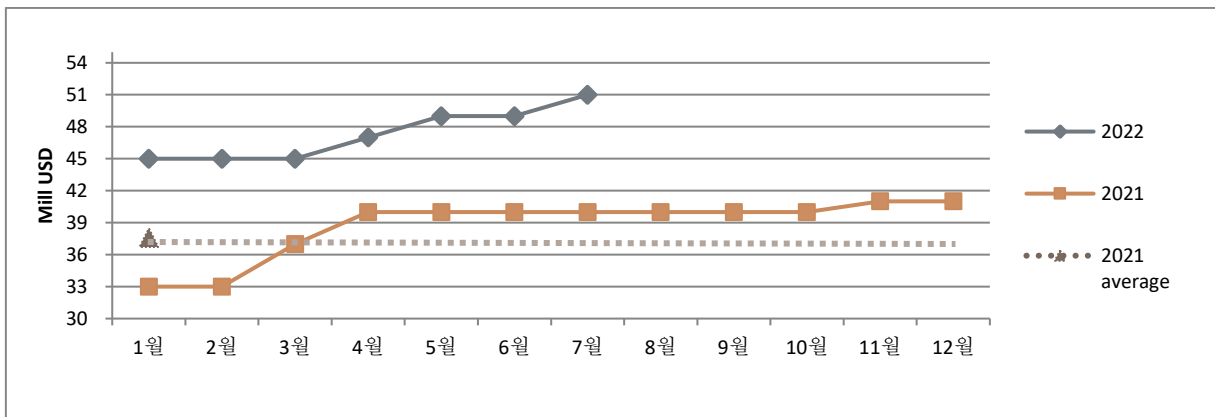
SUEZMAX-16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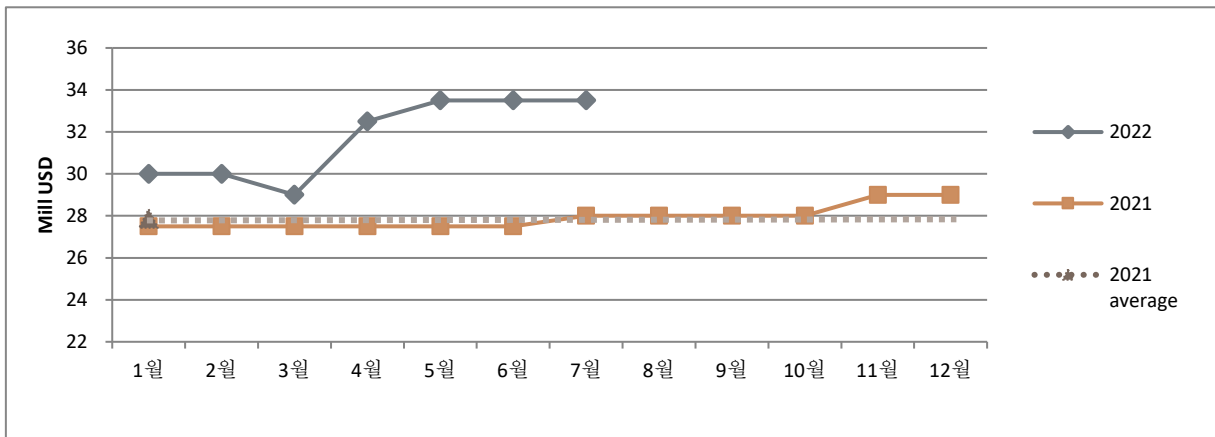
III. TANKER



AFRAMAX-105K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ELANDRA EVEREST	300,000	2020	KOREA	B&W		95	Greek buyer, Scrubber fitted, Eco
TANKER	A SYMPHONY	150,000	2001	JAPAN	B&W		12.8	Chinese buyer
TANKER	STENA PARIS	65,125	2005	CROATI A	B&W		15.5	UK buyer (Union Maritime)
OIL/CHEM	KRONVIKEN	114,523	2006	KOREA	B&W		25	Undisclosed buyer, Ice class 1A
OIL/CHEM	UACC IBN SINA	73,338	2008	CHINA	B&W		--	Undisclosed buyer
OIL/CHEM	EXPLORER II	47,326	2005	JAPAN	B&W		12.1	Undisclosed buyer
OIL/CHEM	ALICUDI M	40,083	2004	KOREA	B&W	3	14	Undisclosed buyer
OIL/CHEM	EBONY RAY	19,998	2008	JAPAN	B&W	2	14	Singaporean buyer (Samudera Shipping)
LPG	ECO NEBULA	29,536	2007	KOREA	B&W		27.75	Turkey buyer (Manta Denizcilik)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NORTHERN JASPER	108804	2009	KOREA	B&W	8814	TEU	--	Denmark buyer (Maersk)
CONT	NORTHERN JUPITER	108622	2010	KOREA	B&W	8814	TEU	133	Denmark buyer (Maersk)
CONT	GUENTHER SCHULTE	42046	2008	CHINA	B&W	3534	TEU	--	Middle Easter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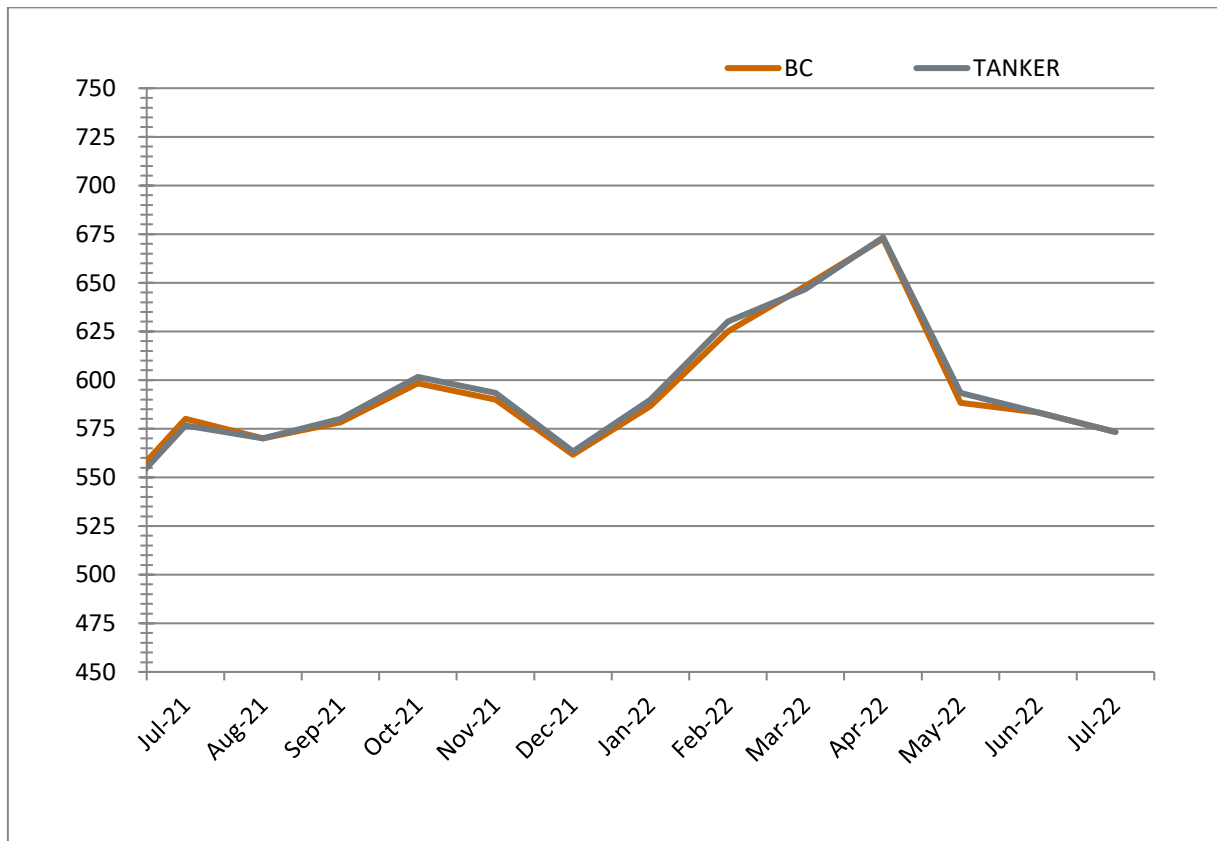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2020 평균		2021 평균		2022 평균		2021.07	2022.07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344.44	-13.1%	526.81	52.9%	612.86	16.3%	576.67	573.33	-1.7%	-0.6%
BC	344.58	-13.6%	529.17	53.6%	611.10	15.5%	580.00	573.33	-1.7%	-1.1%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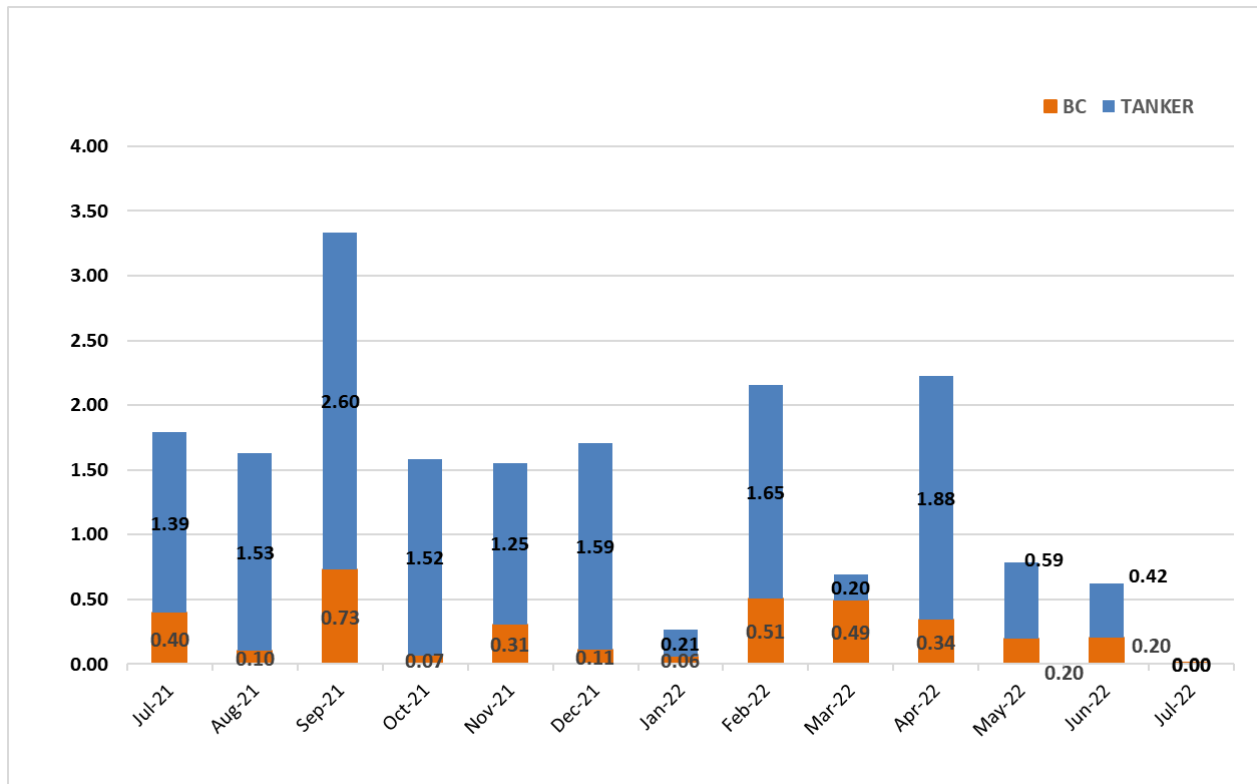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0		2021		2021.07		2022.07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YoY	No.	YoY
TANKER	3.68	112	15.66	315	1.39	30	0.00	-100.0%	0	-100.0%
BC	15.61	164	6.34	123*	0.40	9	0.00	-99.7%	1	-88.9%

*including Bulk &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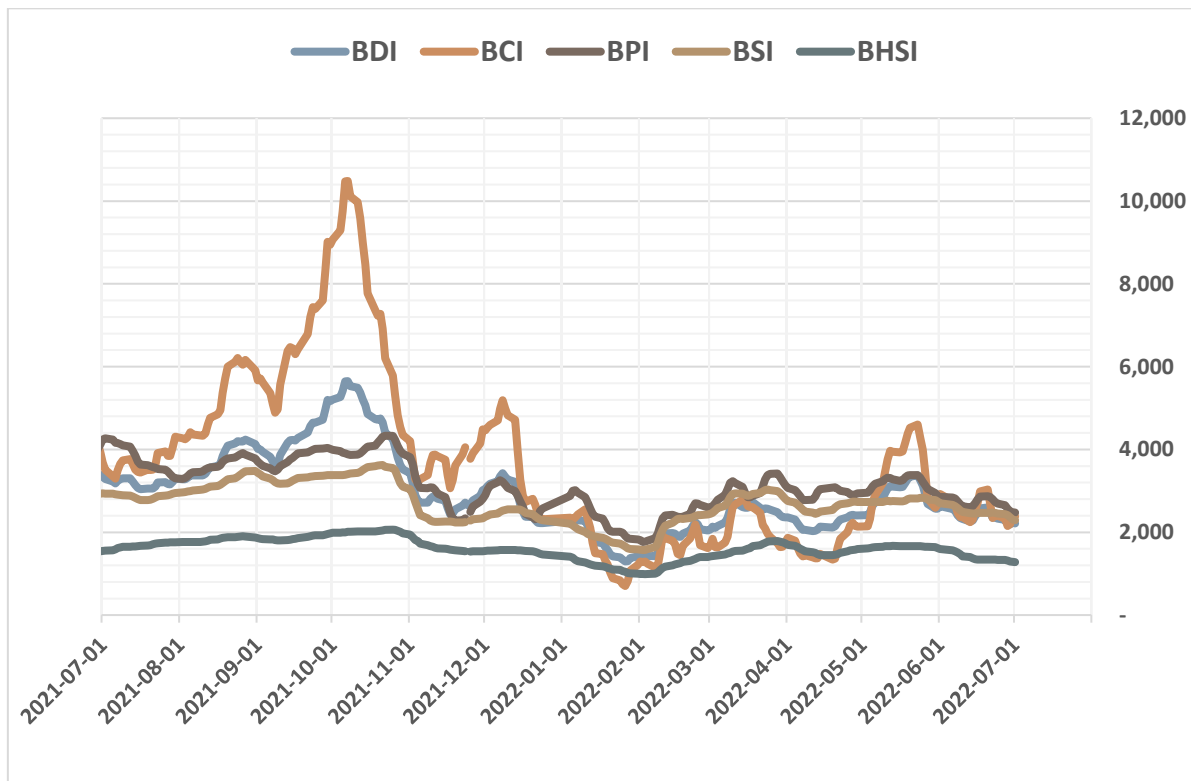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GC	SUNTUDSAMUT 5	2,500	1,020	2001	CHINA	--	593	Bangladeshi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2-07-08	2022-07-01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2,067	2,214	▼147.00	5,650	1,296
BCI	2,270	2,381	▼111.00	10,485	702
BPI	2,223	2,477	▼254.00	4,328	1,765
BSI	2,163	2,290	▼127.00	3,624	1,570
BHSI	1,185	1,276	▼91.00	2,062	988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1045.00	▼77.00	808.00	▼89.50	842.00	▼67.00
MGO	1063.00	▼211.00	1159.00	▼110.00	1141.50	▼183.50
LSMGO	1151.50	▼106.50	1159.00	▼110.00	-	-
IFO380	513.00	▼75.00	503.00	▼63.50	585.50	▼90.00

❖기준일 : 7 월 8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2-07-08	2022-07-01	CHANGE
미국 달러	1302.70	1299.80	▲2.90
일본 엔(100)	958.11	957.18	▲0.93
유로	1324.00	1361.87	▼37.87
중국 위안	194.25	193.89	▲0.36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TREND

[시사 상식] 디지털 유산

개인이 생전 온라인상에 남긴 디지털 흔적을 뜻하며, SNS·블로그·미니홈피 등에 남아있는 사진, 영상, 일기, 댓글 등이 해당한다.

[출 처 :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 기사] 디지털 유산 상속

토종 SNS 인 싸이월드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시대가 오기 전인 2000년대 중·후반 미니홈피 열풍을 이끌었다. 회원이 한때 3200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2019년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3년 만에 부활한 싸이월드가 세상을 떠난 사용자의 글과 사진 등을 유족에게 넘기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싸이월드 운영권을 인수한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최근 시작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신청이 2400여건으로 집계됐다. 싸이월드 회원의 글·사진 등 게시물 중 공개 설정된 데이터를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이 신청하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일종의 '디지털 유산'이라는 관점과 유족이라도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의 충돌이다. 서비스 옹호자들은 고인의 SNS에 남아있는 사진과 영상, 다이어리 등의 게시물은 디지털 유산이라고 본다. 고인이 쓴 책이나 일기장, 편지 등 유품을 유가족이 물려받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반대자들은 "아무리 유족이라 할지라도 고인의 모든 데이터를 볼 권리는 없다"며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에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은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해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구글은 계정 소유주가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 네이버는 유족이더라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요청 시 공개 정보만 백업해 제공하고 나머지는 회원탈퇴로 처리한다. 다른 회사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축적되는 디지털 정보를 무한대로 남겨둘 수는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후에 가족들이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기록·데이터 관리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출 처 : 세계일보]



VII. CONTACT DETAILS

STL SHIPPING		President_Neal S.I. Kwon (대표이사 권순일) Tel. 070-7771-6410	
SnP snp@stlkorea.com	Jack Kim (이사 김종수) Director Tel. 070-7771-6411	Nova Cha (차혜정) Team member Tel. 070-7771-6409	
Address: 101-13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LOBAL		President_Marino Hwang (대표이사 황재웅) Tel. 070-7771-6400	
Chartering biz@stlkorea.com	Sancho Kim (이사 김현진) Director Tel. 070-7771-6404	Mike Hong (부장 홍창목)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Fleet Operation biz@stlkorea.com	H.S. Lee (부장 이현성)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Research & Operation snp@stlkorea.com	Anna Lee (과장 이혜란) Manager Tel. 070-7771-6403	Joovi Park (대리 박주비)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Henry S.H.Oh (차장 오수현)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2	Jennifer Park (과장 박영단) Manager Tel. 070-7771-6407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 (차장 안지영)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5	Joanne Jin (과장 진정식) Manager Tel. 070-7771-6406	
Tel. +82-2-776-0840 (Rep.) Email. seoul@stlkorea.com website : www.stlkorea.com Address: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에스티엘 지투어_STL G TOUR		전남요트아카데미_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영하	Tel. 1661-8388 Tel. 070-4800-0151 Fax. 02-6499-8388 www.stlgtour.com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진행	Tel. 061-247-0331 Tel. 010-2777-4027 Fax. 061-247-0333 www.stlyacht.com academy@stlyacht.com